KS 1차전, KIA가 웃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삼성에 5-1로 이겨… 21일 우천으로 경기 중단 후 재개

2차전에서 KIA 김도영, 포스트시즌 개인 통산 첫 홈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사상 첫 포스트시즌 서스펜디드(일시정지) 게임 변수를 딛고 한국시리즈(KS·7전4승제)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KIA는 2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쏠뱅크 KBO 포스트시즌 KS 1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5-1로 이겼다.

정규시즌 1위로 KS에 직행한 KIA는 2017년 이후 7년 만이자 12번째 통합 우승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무승부로 끝난 1982년을 제외하고 역대 40차례 KS에서 1차전 승리 팀이 우승한 것은 29번이다. 우승 확률이 72.5%에 달한다.

KIA는 '2박 3일'로 치러진 1차전을 가져가면서 기세를 올렸다.

이날 경기는 당초 지난 21일 개시됐다. 비로 인해 개시 예정 시각에서 1시간 6분을 더 기다려 오후 7시 36분 시작됐지만 6회초 우천 중단됐다. 45분을 기다려도 비가 잦아들지 않아 오후 10시 9분 서스펜디드가 선언됐다.

역대 포스트시즌에서 서스펜디드 게임이 나온 건 처음이다.

이튿날에도 밤새 비가 내린 그라운드 사정으로 경기는 속개되지 못했고, 결국 하루 더 밀린 이날에야 서스펜디드 게임이 재개됐다.

경기는 1-0으로 앞선 삼성의 6회초 무사 1, 2루 공격부터 다시 시작됐다.

타석에는 그대로 삼성 김영웅이 섰다. KIA는 중단 전 던지고 있던 투수 장현식 대신 전상현을 마운드에 올렸다.

중단 직전 흐름을 주도하고 있던 삼성에게는 더욱 중요한 순간이었다.

삼성은 6회초 선두타자 김헌곤의 우월 솔로포로 선제점을 뽑은 뒤 르윈 디아즈, 강민호의 연속 볼넷을 찬스를 만들고도 서스펜디드 선언으로 멈춰서야 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재개된 경기에서 흐름을 연결하진 못했다.

김영웅이 전상현에게 번트를 댔지만, 포수 땅볼이 되면서 1사 1, 2루가 됐다. 이어 박병호는 삼진으로 물러났다. 윤정빈이 전상현에게 볼넷을 골라 만루를 이었지만 이재현이 투수 땅볼로 잡혀 추가 득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반면 실점 위기에서 경기가 중단되며 한숨을 돌렸던 KIA는 경기 재개 직후 전상현의 철벽투로 추가 실점을 막았다.

그리고 0-1로 지고 있던 7회말에는 역전까지 이뤄냈다.

선두 김선빈의 볼넷, 최원준의 우전 안타로 반격에 나선 KIA는 김태군의 희생번트로 1사 2, 3루 기회를 잡았다.

서건창이 삼성 구원 임창민에 1루수 뜬공으로 물러났지만 박찬호 타석에서 나온 폭투로 손쉽게 동점을 일궜다. 계속된 2사 1, 3루에서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타석에서도 임창민이 초구에 폭투를 던져 3루 주자 최원준이 홈을 통과, 2-1로 역전했다.

이어 소크라테스, 김도영이 연거푸 적시타를 치며 점수는 4-1로 벌어졌다.

8회 2사 후에는 최원준의 우전 안타, 김태군의 좌중간 2루타를 묶어 한 점을 더 뽑았다.

KIA 마운드는 전상현에 이어 곽도규, 정해영이 무실점 투구로 삼성 타선을 틀어막고 경기를 끝냈다.

플레이오프(PO·5전3승제)를 거쳐 KS에 오른 삼성은 예상치 못한 서스펜디드 게임에 좋았던 흐름을 유지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경기 재개 후 1⅔이닝 2탈삼진 무실점 투구를 펼쳐 삼성 타선을 꽁꽁 묶은 전상현이 데일리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전상현은 상금 100만원을 받는다.

선발 투수들의 희비도 갈렸다.

KIA 제임스 네일은 5이닝 4피안타(1홈런) 6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고 마운드를 내려와 경기가 속개되지 않은 이틀 간 '패전 위기'에 있었지만, 팀의 역전승으로 웃음을 되찾았다.

삼성 선발 원태인은 5이닝 2피안타 무실점 역투를 벌이다 경기가 중단되면서 '강제 강판'이 됐다. 팀의 역전패로 승리 투수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승리 투수에는 KIA 곽도규의 이름이 적혔다.

이날 오후 4시에 재개된 1차전은 오후 5시 28분 종료됐다. KS 2차전은 1시간 2분 후인 오후 6시 30분 개시됐다.

이날 2차전에서 KIA 타이거즈의 간판타자 김도영이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에서 포스트시즌(PS) 개인 통산 첫 홈런을 터트렸다.

2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김도영은 삼성 이승민의 시속 142㎞짜리 직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1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번 시즌 홈런 38개를 폭발한 김도영은 KS 2번째 경기에서 PS 개인 통산 첫 아치를 기록했다. 김도영은 올해 처음으로 PS 무대를 밟았다.

김도영의 홈런에 힘입어 KIA는 격차를 6-0까지(오후 8시 30분 현재) 벌렸다. /뉴시스

23일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2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2회말 2사 KIA 김도영이 솔로 홈런을 친 뒤 이현곤 코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한인비즈 '태권도원 홍보부스' 발길 이어져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군과 함께 부스 운영… 체험 프로그램 · 콘텐츠 소개 등 태권도원 홍보 나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대학교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태권도원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24일까지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 동포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국내 기업인 등이 참가하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관광 활성화와 한국관광 100선 선정,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 소개 등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무주군과 함께 부스를 운영 중으로 비가 내린 22일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았다. 태권도 여행 상품인 '태권스테이'를 비롯해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 소개와 격파 체험, 무주군에서 열리는 반딧불축제와 산골영화제 등 축제,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헌 이사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국기 태권도와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생각한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큰 행사에 동참해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무예이자 스포츠로서의 태권도가 더욱 가깝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외동포청 등 정부와의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홍보부스를 운영 중으로 부스를 찾는 누구나 격파 체험과 함께 태권도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학교에서 24일까지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태권도원 홍보부스에서 한 시민이 격파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전북체육회 이사회 개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등 심의

파리올림픽 · 제61회 도민체전

여성생활체육대회 등 결과보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이사회를 열고 전북 체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2일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제62회·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사항을 비롯해 임원변동 사항과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 제61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 등 올해 치러진 주요 대회(행사)에 대한 결과보고도 이뤄졌다.

또 기타사항 시간에서는 "전북 체육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입을 모았다.

정강선 회장은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주시는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전북 체육이 체육 강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축! 전주매일 창간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대표상징물(CI) 25년 만에 바뀝니다!

장수군
JANGSU COUNTY

새CI는 금강·섬진강의 발원인 첫물, 청정 산악지역,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의 고장, 생태관광 • 산악레저 • 생명산업의 '으뜸 장수'를 형상화했습니다.

장수 그린 청정자연과 고원지역 의미
장수 블루 금강과 섬진강의 상류수원 '물의 으뜸 고장' 의미
장수 레드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의 고장 의미